

##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에 나타난 동학의 서사와 의미\*

배 지 연\*\*

### 차 례

1. 서론: 『한티재 하늘』 다시 읽기
2. 문노인 부자의 <안심가>: ‘뺨란구이’의 역사와 경북 북부지역의 동학
3. 은애의 주문(呪文): 시천주(侍天主), 모심과 살림의 세상
4. 결론

### 국문초록

『한티재 하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사건을 경북 북부지역에 살던 이들의 언어와 서사로 풀어쓴 소설이다. 『한티재 하늘』의 전반부는 ‘숨어서 동학하는 사람들’의 서사와 한티재를 오가는 ‘뺨란구이’의 서사가 뒤섞여 전개되는데, 그들을 추동하는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정신이 등장인물이 읽는 동학의 경전을 통해 제시되었다. 동학에서 물꼬를 튼 뺨란구이의 서사는 문노인 부자와 손자 서억의 서사를 거치며 한국 근대사의 흐름 속에 안착하는데, 소설에 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4093315).

\*\*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시된 문노인 부자의 <안심가>는 갑오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뺨란구이’의 역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시개벽’의 정신으로 추동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여성들의 서사는 여성해방을 선취한 동학사상과도 이어지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은애는 일상에서의 수련을 통해 삶을 변혁하는 동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 구현되는 동학의 주문 수련은 동학사상이 집약된 21자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면서, 그 핵심인 ‘시천주’를 직접 체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체득된 ‘시천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은애의 시각과 인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한다. 은애의 주문은 차별받고 수탈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하늘님’으로 모심으로써 ‘시천주’를 삶으로 드러냈다. 그녀의 서사는 동학이 개인의 종교활동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에 제시된 동학과 ‘뺨란구이’의 서사는 유교적 봉건제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한국 근대사의 흐름과 관련 있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은 조선사회의 이념적 틀이었던 유교(성리학)으로는 신분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한 사회적 모순, 외세침략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파악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천주’를 통해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존재를 발견했다. 『한티재 하늘』은 ‘시천주’와 수운의 가르침을 경유하며, 신분질서와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는 여성의 서사를 통해 유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티재 하늘』, 권정생, 동학, 최제우, 뺨란구이, 시천주, 주문(수련)

## 1. 서론 : 『한티재 하늘』 다시 읽기

이 글은 권정생의 장편소설 『한티재 하늘』을 분석함으로써 아동문학 너머 새로운 측면에서 그의 문학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1998년에 발표된 『한티재 하늘』은 작가가 10권 분량의 대하역사소설로 계획하였으나, 1~2권만 출간된 미완의 소설이다.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자 유일한 장편소설이며 무엇보다 한국 근현대사를 대하역사소설로써 재현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티재 하늘』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평생 동화작가로 살아온 권정생이 등단 30년 즈음에 장편·대하역사소설 양식으로 담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은 그의 문학이 지향하는 바를 가늠하는 한편, 아동문학 장르를 넘어서 권정생 문학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는 일이다.

그럼에도 『한티재 하늘』에 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1998년 소설 발표 당시와 직후에 서평 형식으로 이뤄진 논의<sup>1)</sup>를 포함하여, 등장인물과 서사를 중심으로 역사소설로서의 의미를 다루거나<sup>2)</sup>, 현실문제를 형상화한 리얼리즘 소설로 분석하거나<sup>3)</sup>, 소설에서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성성을 분석한 연구<sup>4)</sup>들이 있다. 한편, 경북 북부지역에 오래 살아온 권정생의 이력과 관련하여 『한티재 하늘』을 그 지역 민중들의 대항기억과 지역사를 복원한 소설로 파악한 논의도 있다. 그에 따르면, 『한티재 하늘』은 경북 북부지역 사람들의 기억과 입말로 재구성된

- 
- 1) 안상학,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의 현장 삼밭골」, 『향토문화사랑방 안동』 1993년 3-4월호, 문화모임 안동, 1993; 이계삼, 「자연의 삶, 고통의 의미- 권정생 선생의 <한티재 하늘>에 대하여」, 『녹색평론』 100, 녹색평론사, 2008. (원종찬 위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에 재수록)
  - 2) 한양하, 「권정생의 역사의식 연구-『한티재 하늘 1, 2』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5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31-56쪽.
  - 3) 김상임, 『권정생 『한티재 하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4) 이수연,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민중의 역사를 재현한 것으로서, ‘양반의 고장’으로 표상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전복하고 양반제가 지닌 모순과 억압을 서사화하였다<sup>5)</sup>. 그런데, 이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소설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양반제-봉건적 지배체제에 관한 비판이 동학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정생은 지역에 전승된 동학과 생존 동학교도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 민중소설들도 보면 거기 같이 참여했던 백성들은 다 사라져 없고, 고통받다 죽구 그중에서 앞에 섰던 위대한 사람들만 남아버리잖아요. 나는 조선시대 때 뭐 이런 거는 모르고 동학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해요, 어른들이. / 저기 살구나무재 넘어가면 지리산처럼 아주 깊은 산이 있는데 거기 숨어 살던 어른이 하나 있었어요. 동학전쟁에 참여했던 어른이래요. 아, 키가 크고 그랬는데, 그 어른이 ‘뺨란구이’를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뺨치산은 아니고 ‘동학전쟁 하던 옛날 뺨란구이’라고 했어요. 신돌석 장군하고 이어지는 뺨란구이 하다가 저기 숨어 산다고 하는데, (강조 및 중략-인용자)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구유도 만들고 지게도 만들어서 장에 나가 팔고 하셨지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독립운동가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몇 사람들은 이름이 남는데 3.1운동 때 만세 부르던 사람들, 동학 이런 데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봉준이 실패하고 다 죽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뺨치산도 그랬듯이.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sup>6)</sup>

실제로 『한티재 하늘』에 등장하는 130여 명의 인물은 교과서나 역사 기록물에 서술된 주요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 변혁기의 각종 봉

5) 배지연, 「경북 북부지역 민중들의 대항기억과 지역사의 복원-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 연구』, 『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71-203쪽.

6) 원종찬, 「저것도 거름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66쪽.

기에 참여한 이름 없는 이들이거나 그러한 붕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이들이었고, 무엇보다 조선 말기 봉건제도와 일제강점기에 끊임없이 수탈당하던 존재들이었다. 『한티재 하늘』은 그들의 삶을 서사화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유교 문화가 공식역사로 기록되던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를 ‘다시-쓰기’하고 있는데<sup>7)</sup>, 본 논문은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동학의 역사와 서사라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소설에 재현되는 동학의 서사와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1권과 2권으로 출간된 『한티재 하늘』은 각각 12장,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의 전반부는 서사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을 제시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서사화하였다. 이 부분의 핵심이 작가가 언급한 ‘동학전쟁 하던 옛날 뺨란구이’의 서사다. 소설은 을미년(189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주요사건은 ‘동학전쟁’<sup>8)</sup>(1894년)과 그 전후의 맥락을 끊임없이 환기하고 있다. 동학 창도 초기부터 동학의 교세가 강력했던 경북 북부지역에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전후로도 치열한 항쟁이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소설의 서사와 긴밀하게 엮여있다. 『한티재 하늘』에는 이와 같은 ‘동학전쟁 하던 옛날 뺨란구이’의 서사뿐 아니라, ‘숨어서 동학하는 사람들’의 서사를 통해 동학의 경전과 교리를 소설에 담고 있다. 동학사상을 삶에서 구현해가는 그들의 서사는 소설에서

7) 배지연, 앞의 논문, 171-203쪽.

8) ‘동학전쟁’이라 함은 1894년에 있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말한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쟁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 경상 북부 지역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도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항쟁은 치열했다. 수운 최재우가 처음 경주에서 창도하여 초기에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동시에 전통유림들이 처음 동학배척운동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필제의 난’으로 알려진 바, 동학교도가 경북 북부의 영해를 중심으로 최초로 변혁운동을 벌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호서지역과 함께 가장 치열한 항쟁이 벌어진 지역이 바로 영남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이화, 「영남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한국 근대사회」,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5, 11-34쪽 참조. 권정생이 밝힌 바와 같이,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동학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을 둘러싼 동학의 역사와 관련 깊다.

비판적으로 제기되는 양반사회의 모순과 대비됨으로써 유교적인 봉건사회의 문제들이 동학의 어떤 지점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티재 하늘』에 재현된 동학의 서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재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에 직접 인용되는 동학의 경전과 주문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 담긴 사유가 소설 속 인물과 서사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작가가 언급한 ‘동학 전쟁 하던 옛날 빨란구이’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동학의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읽힐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소설에서 ‘숨어서 동학하는 사람들’의 서사로 재현되는데, 이들의 서사를 통해 양반-유교적 봉건 체제의 극복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문노인 부자의 〈안심가〉 : ‘빨란구이’의 역사와 경북 북부지역의 동학

『한티재 하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삼밭골로 대표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가난한 민중의 삶을 재현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눈여겨볼 것은 서사의 시공간이 특정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 서두에는 ‘삼밭골은 열두 골’이라며 삼밭골에서 이어지는 여러 골짜기와 마을, 그리고 그것을 잇는 고개를 안동 지역 토박이말로 열거하며 서사 공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 해당하는 삼밭골<sup>9)</sup>을 필

9) 소설은 삼밭골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삼밭골은 골짜기 자갈밭이라 소출이 적은데도, 그곳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양반 지주에게 도조를 내야 한다. 소설의 화자는 이러한 삼밭골의 묘사 과정에서 “이 조선 땅 어디나 반반한 곳이면 양반님네들이 자리를 움켜쥐고 땡땡거리고 있다”(1권, 6쪽)면서, 수탈하는 ‘양반님네’와 수탈당하는 ‘착한 여름지기’를 대조함으로써 조선사회의 계급적 불평등과 수탈의

두로, 그 아래 여러 마을을 옮기며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를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반 계급에 수탈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삶이 재현된다. 말하자면, 소설의 공간은 삼밭골에서 시작하여 그 아래 마을로, 그리고 안동 여러 지역을 거치며 청송과 영주, 순흥, 영덕과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으로 확장된다. 다양한 지명 가운데서도 주요 서사가 진행되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소설의 표제로 쓰이는 ‘한티재’다. 한티재는 안동에서 여러 지역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으로, 소설을 이끄는 주요사건들이 이곳을 매개로 재현된다.

- (1) 한티재 너머로 난리가 밀려온 건 그날 밤이었다. 지난해 동학난리를 거쳐 올 팔월에 을미국상을 당하고부터 삼남 지방은 여기저기서 반란구이(반란군-의병대)들이 갑자기 별떼같이 일어났다. 설달에 들면서 한티재 너머에도 한 동네에 두셋씩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sup>10)</sup>.
- (2) 한티재 이편저편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탐마을 장씨네와 못골 김씨네도 숨어서 믿어온 동학 때문에 가산을 몽땅 빼앗기고 타지방으로 떠났다고 했다. 청송, 진보, 영양, 춘양, 봉화, 순흥, 문경 쪽으로 반란군과 수비대들의 싸움이 줄다리기처럼 밀고 밀리며 끝날 줄을 몰랐다.<sup>11)</sup>

인용문에 드러나듯, 한티재는 동학난리, 을미국상 등 한국 근대사의 특정 사건에 연루된 장소다. 등장인물들은 역사적 변혁기에 특정 사건에 휩싸이며 한티재를 넘어가게 되고, 낯선 곳에서 자기 앞에 닥친 삶과 씨름하며 살아간다. 말하자면, 한티재는 근대 전환기 변혁의 물결에 대응하는 민중의 역사를 매개하는 동시에 조악한 현실에 대응하는 민중들의

---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0) 『한티재 하늘 1』, 지식산업사, 1998, 13쪽. (이후 『한티재 하늘』을 인용할 경우, 권수와 쪽수만을 표기하기로 함)

11) 1권, 20쪽.

흔적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한티재에서 재현되는 역사적 사건은 그것을 특징하는 명확한 시기로 명기되면서 해당 서사가 실제 역사와 연동되고 있음을 표시한다. 예컨대, “그해 을미년(1895년)”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를 연도 등과 병기하는 방식인데, 을미년·정미년·을사년·기미년 등 우리 근대사의 중요시기와 소설의 주요사건은 연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티재 하늘』은 을미년(1895년)에서 시작하여 1937년까지 각 시기와 연동하는 역사적 사건에 특별할 것 없는 인물들의 서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근대 전환기와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를 소설화하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토박이말로 제시되는 특정 지명은 “특정한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행위”<sup>12)</sup>를 민중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데 유효하게 활용된다. 이런 점에서, 『한티재 하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를 지역사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티재 하늘』의 첫 사건은 “그해 을미년(1895년) 동짓달”(1권, 8쪽), 삼밭골 아래 돌음바우골 사는 분들네의 출산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칠 ‘을미년 난리’로 이어진다. 소설에서 “을미년 설달 스무날”<sup>13)</sup>이라는 구체적 일자로 표시된 을미난리는 을미국상(을미사변)으로 촉발된 의병 항쟁을 의미한다. 전국 각지의 유생이 중심이 된 을미의병은 갑오개혁 이후 부임한 관리들을 친일파로 지목하여 문책하는 한편, 자신들을 진압하는 관군 및 일본군과 항전했다. 을미의병은 유생이 중심이 되었지만 ‘척왜(斥倭)’의 기치에 동조한 백성들도 다수 참여했는데, 일제강점 전후에 전개된 애국계몽기 항일의병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서사적 공간인 안동의 경우, 안동부 관할 16개 군 중에 안동·청송·진

12)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301-317쪽 참조.

13) 양력으로 환산하면 1986년 1월이며, 을미사변(을미국상)과 단발령 시행에 봉기한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시기와 일치한다.



보·영양·영덕·영해·영주·예안·봉화·순흥·풍기·예천 등 12개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날 정도로 항쟁이 거셌다<sup>14)</sup>.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유림과 양반 사족이 옹거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을미의병의 활약상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티재 하늘』은 을미의병의 중심에 섰던 유생과 양반의 서사 대신에, ‘뺨란구이(반란군-의병대)’라는 존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 (1)은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경북 북부지역에도 치열하게 항쟁하던 시기에 한티재 너머로 봉기에 나선 이들을 그리고 있다. 괄호 안에 병기된 ‘반란군’과 ‘의병대’가 지시하듯이, 이들 ‘뺨란구이’의 위상은 이중적 혹은 중층적이다. 뺨란구이가 반란군이자 의병대인 이유는 갑오동학농민군 일부가 을미의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안동 지역은 창도 초기부터 동학교도가 꾸준히 활동하였고, 갑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안동을 비롯하여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활발했다<sup>15)</sup>. ‘반왜(反倭)’와 ‘척왜(斥倭)’를 주창

14)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호서사학회, 2009, 86-93쪽;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1-의병항쟁』, 경상북도, 2012. 참조.

15) 안동은 창도 초기부터 동학교도가 많았고, 해월도 경북에서 꾸준히 포덕했다. 이필제의 난, 즉 영해작변 당시 영해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동학교도들의 피해가 컸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컸음을 방증한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봉기한 세력도 컸으나, 전통유림의 반발로 민보군이 결성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동학학회, 2013, 96-119쪽.

한편, 안동 부사의 통제를 받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양반 사족들이 옹거하며 백성(상민)을 압제해온 곳이지만, 이곳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동학 조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무장활동을 서두르고 봉기했다. 그 까닭은 청일전쟁을 대비한 일본군이 경상도 요지에 병참부를 설치하며 조선 침략을 노골화했기 때문이었는데,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과 충돌한 것도 경북 북부지역이 가장 먼저였다. 갑오년 당시 경상도 북부에 도회를 열었던 동학교도들의 목표는 일본군 병참부와 군용전신소 공격이었으며, 자신들의 봉기들은 ‘반왜(反倭)’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신영우,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경상도 대구동학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16, 119-122쪽.

한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위세가 대단하였으나, 그들의 봉기를 양반 계급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한 보수지배층은 보수집강소와 민보군을 동원하여 완강하게 대항했고, 그 결과 동학농민군은 민보군과 관아(정부군)의 추적을 받아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했다<sup>16)</sup>. 『한티재 하늘』에서 재현된 ‘뺨란구이’, 즉 을미의병에 나선 이들이 ‘반란군’과 ‘의병대’ 사이의 이중적 존재로 그려진 것은 갑오동학농민군에 드리워진 중층적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인용문 (2)는 갑오년 이후 동학교도들이 자신의 삶터를 떠나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갑오동학농민군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동학교도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을미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봉기한 이들이 후일에는 다시 ‘반란군’의 위상으로 ‘수비대’에게 쫓고 쫓기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음이 인용문 (2)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은 인용문 (1)의 뒤에 이어진 “숨어진 동학을 믿어온 별난 집안”의 문노인 부자의 서사를 보충하고 있다. 소설 초반에 제시된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을미의병으로 나서는 청년 동학교도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소설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뺨란구이’의 서사와 동학을 이어준다. 그리고 그들의 서사에 이어 다시 인용문 (2)를 배치함으로써 을미의병을 상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숨어서 믿어온 동학’에 관한 서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뺨란구이’와 동학을 연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반란군’/‘의병대’, ‘반란군’/‘수비대’라는 중층적인 의미망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반봉건 반외세를 주창하였던 동학농민혁명이 당대

16) 이 지역의 동학농민군 일부는 영동에 결집한 북접동학농민군에 합류하여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갑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이들 중 다수는 갑오년 봉기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반봉건 반외세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는데, 대부분은 갑오년 혁명 이후 의병, 활빈당, 만주의 독립군 등에 편입되어 투쟁을 이어 갔다. 갑오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동학교단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각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관의 지속적인 탄압을 피해 기존의 삶터를 떠나야만 했다.

에 어떤 위상으로 존재했는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티재 하늘』에서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동학혁명군을 원했던(1권 15쪽)” 길수가 아버지의 간청으로 아들을 낳은 후에야 을미의병-빨란구이가 되어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봉건·반외세를 주창하며 조선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운 갑오 동학농민군, 그리고 양반·유림 등 봉건세력이 주도한 을미의병은 그 성격이나 지향이 다르지만, 『한티재 하늘』에는 동학교도 길수가 을미의병을 자청하며 빨란구이가 되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티재 하늘』은 한국 근대사의 특정 사건들을 소설에 들여놓으면서 해당 시기를 명확하게 명기하고 있는데, 문노인 부자의 서사에서도 그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문노인의 아들 길수가 을미의병, 즉 빨란구이가 되어 떠났다가 죽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 뒤<sup>17)</sup>”에 아들을 얻은 길수는 비로소 빨란구이로 나설 수 있게 되는데, 가족들은 그가 집을 나간 지 열흘 만인 “여드레째 되던 설날<sup>18)</sup>”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처럼 빨란구이로서 길수의 행적이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설정됨으로써 소설의 서사는 역사적 실체와 연동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동학이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 아국 운수 가련하다 / 전세 임진 몇해런고 / 이  
백사십 아닐런가 / ..... /

기업하다 기업하다 / 아국 운수 기업하다 / 개 같은 왜적놈아 / 너희  
신명 돌아보라 / 너희 역시 하륙해서 / 무슨 은덕 있었던고 / 전세 임진  
그때라도 / 오성 한음 없었으면 / 육체 보전 누가 할까 / 아국 명현 다  
시 없다 / 나도 또한 한울님께 / 육새 보전 봉명했네<sup>19)</sup>

17) 1권, 15쪽. 이는 1895년 11월경(음력 9월 말)에 해당한다.

18) 1권, 15쪽. ‘여드레째 되던 설날’이란 을미년 난리(을미년 설달 스무날) 이후 분  
들네 등 동네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다 돌아온 시점 이후 여드레째 되던 날을 말  
하는데, 해가 바뀐 다음 해 설날로 설정되어 있다.

19) 1권, 16쪽.

인용 부분은 길수의 출병 전야에 부자가 함께 『용담유사』에 실린 <안심가>를 읽는 장면으로, 소설에는 <안심가>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뺨란구이가 되고자 집을 나서는 길수의 서사와 동학과의 관련성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서민과 여성을 위해 한글로 집필된 동학 경전 『용담유사』<sup>20)</sup>에 실린 가사 중에서 “현숙한 내집부녀 이글보고 안심하소”로 시작하는 <안심가>는 당시 사회정치적 정세에 불안해하던 부녀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은 노래이며, 천대받던 부녀자들을 현숙하고 거룩하다고 높이면서 춘삼월 호시절의 태평가를 함께 부를 주체로 호명한다. 소설에 인용된 부분은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면서 한울님으로부터 옥새 보전의 명을 받았음을 밝히는 <안심가>의 후반부 구절이다.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용담유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척왜’가 강조되었던 이 부분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동학혁명군’을 원했던 길수가 ‘을미의병-뺨란구이’가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이끌고 있다. 이로써 ‘뺨란구이’로 나서는 길수의 결행이 일본 등 열강의 침탈에 맞서는 보국안민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안심가>에서 강조된 척왜와 보국안민의 정신은 19세기 말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sup>21)</sup>. 『한

20) 『용담유사』는 한문으로 집필된 『동경대전』과 함께 동학의 창도 배경과 원리를 담고 있는 기본 경전이다. 『동경대전』과 마찬가지로, 『용담유사』 또한 수운이 창작했으나, 이것을 책으로 간행한 것은 2대 교주인 해월이다. 창도한 1860년에서 1863년에 걸쳐 창작된 『용담유사』에는 용담가(龍潭歌)·안심가(安心歌)·교훈가(敎訓歌)·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도수사(道修詞)·권학가(勸學歌)·도덕가(道德歌)·흥비가(興比歌)·검결(劍訣) 등 9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국문가사의 양식을 택했고, 형식적 제약이 없고 당시 서민들에게 익숙했던 4음 4보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용담유사』에 수록된 동학가사에 관해서는 김상일, 「전·후기 동학가사의 동학사상과 그 변모」, 『동학과 전통사상』, 모시는사람들, 2005, 161-204쪽 참조.

21) 동학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내외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보국안민의 구도 동기에 의해 창도된 현실적 종교사상이다. 당시의 사상과 학문-유교(성리학), 불교, 그리고 서학으로는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운은 고통받던 조선 백성을 위한 ‘우리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을 창도하고, 시천주 사상을

티재 하늘』에 직접 인용된 <안심가>를 통해 수운의 문제의식이 문노인 부자의 서사에 겹쳐지는 한편, “나라도 백성도 모두 한울님”이라는 동학의 핵심 언명이 아들을 향한 문노인의 당부를 통해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의 강령이기도 한데, 이로써 문노인의 언술은 이미 반란군이 된 갑오년의 동학농민군과 을미년의 빨란구이를 잇는 하나의 열쇳말로써 기능한다. 이와 같이,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동학혁명군’과 ‘을미의병-빨란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한편, 19세기 말 조선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던 동학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티재 하늘』의 초반부에 제시된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이후 흠어미에 의해 양육된 서역의 서사로 이어지면서 소설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연루된다<sup>22)</sup>. 이들의 서사는 을미의병의 빨란구이, 즉 동학을 매개로 한 반봉건 항일투쟁의 역사(문노인 부자)와 3.1만세 이후 이 지역의 소작쟁의 운동의 흐름(서역)에 배치됨으로써, 소설 전반에 걸쳐 주요하게 기능한다. 이처럼, 문노인에서 길수, 서역으로 이어지는 문씨 집안 3대의 서사는 <안심가>에서 강조되듯 가련한 ‘아국(我國)운수’를 전환할 ‘다시개벽’을 열망하는 동학사상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바탕으로 한 보국안민을 내세웠다. 수운의 순교 이후 해월 최시형에 의해 사람을 하늘님(한울님)으로 섬긴다는 사상이 강조되면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동학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농민혁명으로 잉태되어 제폭구민과 척양척왜(斥洋斥倭)의 정치·사회적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동학 창도 당시 최제우의 문제의식을 비롯하여 동학사상에 관해서는 김용휘, 『우리학문으로서의 동학』(개정판), 모시는사람들, 2021. 참조.

22) 문씨 일가 3대의 서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을미년 항일의병으로 집을 떠난 길수는 열흘 뒤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문노인마저 순검에게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맞는다. 길수의 아들이자 이 집안의 3대 독자 서역은 ‘현숙하고 거룩한’ 며느리이자 아내인 복남에 의해 잘 양육되어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고, 친구 이석과 함께 일월산에 묻혔다는 길수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장년의 서역은 기미년 만세 사건 이후 자기 아버지처럼 세상을 향해 출가하는데, 서역도 아버지 길수와 같이 혼란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소설의 전반부에 인용된 『용담유사』의 <안심가>는 보국안민의 길로 나서는 동학교도 혹은 ‘뺨란구이’의 삶을 보여주는 한편, 살아남은 부녀자들이 고군분투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삶을 예들려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노인 부자의 서사는 ‘뺨란구이’라는 명명을 통해 을미년의 의병과 갑오년 동학농민군과의 연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티재 하늘』은 안동의 권세연, 문경의 이강년 등 지역의 양반 의병장 이야기 대신에 동학교도 길수가 을미의병이 되어 토벌대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소설화했다. 거듭되는 동학교도의 서사와 이후 ‘뺨란구이’의 서사를 겹치면서, 을미의병 이후의 항일의병의 서사를 ‘뺨란구이’의 서사로 대체하고 있다. “뺨란구이(반란군-의병대)”가 ‘반란군’과 ‘의병대’라는 전혀 다른 의미 사이에 자리하는 것도, 경북 북부지역 갑오년 동학농민군의 위치와 관계된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갑오년 봉기가 발발했지만, 보수적인 양반 사족들이 동학농민군을 적대시하며 일본군까지 끌어들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거나 토벌했다. 이후 일본 침략자들에 의해 자행된 을미사변과 친일 내각에 의해 단행된 단발령 이후 유생을 중심으로 ‘척왜’를 주창하며 반일·반정부 항쟁에 나서자, 일반 농민과 함께 관군 토벌대에 쫓겨 은거하던 동학농민군도 가담하면서 을미의병의 기세는 더욱 커졌다. 을미의병은 아관파천과 친일정권 붕괴로 단발령이 철회되고 국왕이 해산을 권고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이로써 갑오년에서 을미년으로 이어지는 ‘뺨란구이’는 ‘반란군’과 ‘의병대’의 이중적 위상을 지니게 된다. 『한티재 하늘』에는 이러한 갑오년 이후 동학의 흐름을 여러 인물의 서사와 엮으면서 ‘뺨란구이’의 역사로 서사화하고 있다.

- (1) 소백산 골짜기는 오랫동안 의병대들이 숨어다니며 싸우는 전쟁터였다. 동학난리부터 을미년 난리를 거치면서 산천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도 많았다. 여기서는 의병을 의병이라 말하지 못하고 뺨란구이

(반란군)이라 했다. 관군 수비대는 총포를 가지고 다니며 의병을 쏘아 죽이고 잡아갔다. 정유년(1897년)이 지나고 이순이 태어나던 무술년(1898년)이 되면서 많은 의병들이 죽어가고 더러는 항복을 했다. 만주로 옮겨가는 의병부대도 많았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의병들은 태백산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남았다. **빨간구**이라고 했던 의병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화적패**가 되었다. 의병에서 **활빈당**으로 탈바꿈한 그들은 부자집 재산을 훔쳐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다녔기 때문이다. (중략-인용자) 결국 **활빈당**들은 **소백산**이나 **태백산**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큰일을 계획하며 **앞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마을로 내려가 양식을 훔쳐야만 했다. 이래서 **활빈당**은 **화적패**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화적패**를 잡으러 다니는 **관군**들을 **토벌대**라 했다. **토벌대**들은 **화적패**를 찾아 가래실 골짜기에도 들어왔다. **화적**들과 **토벌대**는 서로 쫓으며 쫓기며 마주치면 총을 쏘며 싸우기도 했다. (중략-인용자) **화적패**들 속에는 **갑오년 난리** 때 **농민군**으로 싸우던 이도 있었고 **을미년 난리** 때 **의병**도 있었다. **오십이** 넘은 **늙은이**도 있고 **스무살** **젊은이**도 있었다. 그들은 **일껏 양반 유생**들의 **봉기**에 힘을 얻어 **집과 처자식**과 **부모**를 버리고 **따라나선 용감한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라**에 **역적**이 되어 **앞뒤로 쫓기**는 **화적패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sup>23)</sup>. (강조-인용자)

(2) 큰 사달이 일어나 **가래방** **머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을사년**에 **조선**이 **일본국**에 넘어가자 **신돌석 장군**을 따라 **삼남지방**은 또 한 번 **들개바람**이 일어난 것이다. 죽은 **녹두장군**이 다시 **살아났다**고 **백성**들은 **들뜬 마음**들이었다. **동학난리**만큼 이번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강조 및 중략-인용자) / **신돌석 장군**님 만세! **조선 임금**님 만세! **노비**들과 **머슴**들이 **소리소리** 만세소리를 드높이 부르며 **일월산**으로 모여들었다<sup>24)</sup>.

인용문 (1)은 순흥 가래실 소백산자락에 살던 정원이 빨간구이를 도왔

23) 1권, 37-39쪽.

24) 1권, 56쪽.

다는 이유로 남편과 삶터를 잃고 자녀들과 함께 한티재 너머 친정으로 이주하는 서사 가운데 서술되는 내용인데, 정원네가 가래실을 떠나는 “계묘년(1903년)”의 시점에서 동학난리 이후 빨란구이의 역사가 상세히 정리되고 있다. 인용문에서 ‘빨란구이’는 ‘반란군’, ‘의병’, ‘활빈당’, ‘화적패’ 등으로 명칭이 바뀐다. 실제로 갑오동학농민군에 가담했던 이들은 을미의병 전후의 항일의병(전기 의병, 1894~1896)에 기탁하여 은신한 경우가 많았고, 의병 해산 이후에도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의병 활동이 약화되는 1896년 이후 활빈당과 화적패로 불리는 일군의 농민조직들이 있었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새로운 반란조직을 만들어 정부나 관리의 부정부패와 수탈에 맞섰으며, 영학당·동학당·서학당·초적·토비·화적·의적 등으로 불렸다<sup>25)</sup>. 『한티재 하늘』에서의 ‘빨란구이’가 반란군과 의병, 활빈당과 화적패 사이를 오가는 중층적 의미를 띠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소설에는 ‘빨란구이’를 돕다가 죽거나, 그럼에도 용감하게 그들을 돕는 이들이 등장한다. 순흥 가래실 사는 정원의 남편 건재나 향교골 박씨 등은 “당신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구할라꼬 목숨까지 마쳐 싸우고 있잖니꺼”라며 그들을 의병으로 생각하고 대접하는데, 이에 관해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빨란구이를 도우며 함께 반란에 가담”(1권, 21쪽)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빨란구이’는 지배계급에게는 ‘반란군’, ‘화적패’로 인식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조하며 존경할만한 ‘의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반 계급과의 대비를 통해 ‘빨란구이’의 위상을 의미화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의 화자는 “붕기에 앞장섰던 양반 선비들은 진작에 물러나서 살고 있다”는 언술과 함께, “양반 유생들

25) 특히 예천이나 안동 등지에 활빈 활동을 하는 의적이 있다는 기록도 다수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조동걸, 광무농민운동과 신돌석 의병, 『한국근현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102-121쪽 참조.



의 붕기에 힘을 얻어 집과 처자식과 부모를 버리고 따라나선 용감한 백성들이었던 ‘뺨란구이’가 지금은 “역적이 되어 앞뒤로 쫓기는 화적패신세”(1권, 39쪽)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뺨란구이’의 역사, 즉 근대 전환기 역사적 변혁에 참여한 ‘용감한 백성들’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의 시작 부분, 즉 삼밭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멀리 하회마을의 양반대에 가서 도조를 바쳐야 하는 조선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도 이어진다. 계급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설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뺨란구이’의 역사에도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을미년 난리에서 시작되는 이 소설에서 경북 북부지역 을미의병의 활약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인용문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티재 하늘』은 잘 알려진 양반·유림 의병(장) 대신에 평민 신분의 의병장 신돌석의 이야기를 을미의병-뺨란구이 서사에 들여놓는다<sup>26)</sup>. 활빈당에 가담했던 농민들을 모아 의진을 세운 신돌석은 민중적 기반 위에 막강한 의병세력으로 성장하며 봉건적 신분질서를 뛰어넘는 인물로서 백성들에게 인식된다. 그러나 신돌석은 유생과 양반 출신 의병장 사이에서 백안시되었고,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특히 소설에는 신돌석 의병장과 녹두장군 전봉준을 빗대는 장면을 여러 번 제시함으로써 을미의병-뺨란구이의 서사와 동학의 연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소설의 초반부터 이어온 서사 전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을미의병 이후에 활빈당을 규합하며 반외세 반봉건의 선

26) 영해 출신인 신돌석은 19세에 을미의병에 참전하고, 의병 해산 후 전국을 떠돌다가 1906년 재차 거병했다. 근거지인 영해는 해월 최시형이 동학 포교를 활발히 했고 이필제가 최초의 교조신원운동을 했던 곳인데, 그만큼 봉건 체제에 항거하는 기질이 강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신돌석은 활빈당에 가담했던 농민 300여 명을 모아 의진을 세우고, 부정부패 척결과 봉건주의 타파를 주장했다. 신돌석의 명성에 많은 청장년이 찾아와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그 세력이 확장되었는데, 그의 부대는 군율이 엄격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봉에 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신돌석의 생애가 갑오동학농민혁명 이후 현실변혁을 열망하던 이들의 삶과 잇닿아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한티재 하늘』은 공식화된 경북 북부지역 을미의병(장)의 대표(representative)로서 신돌석의 서사를 제시함으로써 양반과 유생 등 유교적 봉건 지배계급 중심의 공식역사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신돌석의 서사는 소설에서 양반집 노비였던 주남이의 서사와 엮이면 서 봉건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현실변혁의 열망을 담아낸다.

주남이는 여기저기서 모여든 똑같은 처지의 소년들과 어울려 의병대 훈련을 받고 죽창 하나씩을 받아 이 나라 탐관오리와 왜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다. 그것만이 이 나라 불쌍한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 굳게 믿었기에 소년들은 참으로 용감하게 싸웠다. / 그러나 그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상대는 총과 대포까지 갖춘 진짜배기 싸움꾼이다. / 신돌석 장군이 어이없이 죽은 뒤, 의병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좀 똑똑한 사람들은 서간도 북간도로 떠나고 주남이 같은 따라지 목숨들은 죽지 못해 여기저기 숨어 다녔다. 더러는 화적패쪽으로 붙어 버린 소년들도 있고, 더 많은 의병들은 각자 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제껏 했던 일도 바꿨다. 노비로 있던 사람은 밭집장사를 따라 도봇꾼이 되었다. 옹기장수, 새우젓장수, 숯장수, 이렇게 본색을 숨기고 이리저리 다니며 목숨을 이어갔다<sup>27)</sup>.

갑오개혁으로 명분상 신분제도는 타파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양반과 상놈, 종과 머슴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고 존재했다. 의병장 신돌석은 그러한 봉건적 질서를 넘어서는 존재로 표상되기도 했지만, 그 질서를 와해하기엔 역부족이었음을 그의 죽음은 여실히 보여준다. 신돌석 사후에 의진은 해산되고, 여타 의병항쟁은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약화되면서, 의병 일부는 만주로 이동하여 독립군이 되거나 국내에서 결사체를 조직하여 투쟁을 이어갔다. 신돌석 장군을 따라 모였던 주남이

27) 1권, 146-147쪽.

‘들’은 이러한 ‘의병’ 혹은 ‘뺨란구이’의 행로를 따라 흩어진다. 『한티재 하늘』의 주남이는 국내에 남아 산속이나 장터를 오가며 숨어 살다가, 일제강점 이후에는 3.1 만세운동 등 또 다른 항쟁을 이어간다. 이처럼 『한티재 하늘』에 서술된 주남이의 궤적은 동학교도인 길수의 서사와 잇닿으면서, 권정생이 말한 ‘동학전쟁하던 옛날 뺨란구이’의 재현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간 조선 민중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뺨란구이’의 역사는 한티재를 경유한 이 지역 민중의 서사다. 동학교도 길수와 문노인, 뺨란구이를 돕다가 토벌대에 맞아 죽은 건재와 그 식구들, 신돌석 의진에 참여하기 위해 양반집을 나온 주남이 등은 한티재를 넘어 험난하지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다. 이들 모두는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야기된 문제들에 쫓겨 한티재를 넘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한티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향한 열망을 담지한다. ‘뺨란구이’의 서사에 지속적으로 ‘동학난리’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겹쳐지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한티재 하늘』에서 ‘동학난리’로 표시되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농민들의 분노와 폭거만으로 이룬 혁명이 아니다. 수운이 확립한 동학의 사상은 “상호공경과 생명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다시개벽’의 열망이 표출<sup>28)</sup>”된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정신과 ‘다시개벽’의 열망이 갑오년 이후의 수많은 항쟁에 동학교도뿐 아니라 동학을 믿지 않는 이들까지 불러들였고, 이들을 지지하게 했다. 『한티재 하늘』에 재현된 길수에서 주남이로 이어지는 ‘뺨란구이’들,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도왔던 건재와 박씨,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학농민전쟁의 정신을 믿거나 동조하였다. 소설의 중반

28) 그런 의미에서 갑오년에 동학농민군은 패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한 김용휘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다시 일어나 현실의 모순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한국 민중혁명의 꺼지지 않는 불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휘, 앞의 책, 25-50쪽 참조.

이후에 재현되는 3.1운동과 1920~30년대 소작쟁의에 참여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완결되지 못한 미완의 소설 『한티재 하늘』에는 ‘다시개벽’의 열망과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이 등장인물의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식민체제로 인한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데, 소설의 후반부 『한티재 하늘2』에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만주와 간도, 일본으로 떠나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다면, 『한티재 하늘』에 집요하게 제시되는 당대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3장에서는 또 다른 동학교도의 서사를 통해 그 문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해가는 과정 혹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은애의 주문(呪文) : 시천주(侍天主), 모심과 살림의 세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티재 하늘』의 전반부는 ‘숨어서 동학하는 사람들’의 서사와 한티재를 오가는 ‘뺨란구이’의 서사를 뒤섞으며 전개된다. 동학교도 문노인 부자의 잇따른 죽음을 비롯하여, 뺨란구이를 돕다 죽은 건재와 신돌석을 따라 세상을 떠도는 중놈 주남이까지, 동학에서 물꼬를 튼 뺨란구이의 서사는 보국안민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던 무명씨들의 역사다. 『한티재 하늘』은 이러한 ‘뺨란구이’의 역사를 서사의 한 축에 놓으면서, 다른 한 축은 남겨진 가족들의 서사로 채우고 있다.

삼천리강산의 남자들은 그들대로 괴로운 시대를 사느라 괴로웠고, 그런 남자들 때문에 여인들은 또 숨어서 이렇게 고통을 견뎌야했다. (중략 -인용자) 일은 남정네들이 저질렀는데 남아 있던 아낙네들이 뒷일을 모

두 떠맡아야 했다<sup>29)</sup>.

보국안민의 기치에 동조하여 빨란구이가 되거나 그들을 돕던 ‘남정네들’이 있다면, 그들이 떠난 삶터에 남겨진 ‘아낙네들’이 생계를 도맡아야 했다. 문노인 부자의 죽음으로 3대 독자 서억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복남이, 건재가 죽자 남은 아이들을 이끌고 홀어미 수동댁에 얹혀살아가는 정원이, 이 두 청상과부는 자매 같은 이웃이 되어 각자의 집안을 꾸려갔다. 스무 살에 홀로 된 복남은 숨씨 좋은 길쌈꾼이자 살림꾼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는데, 정원은 그런 복남을 스승처럼 우러러보았다. 시부와 남편이 읊던 <안심가>의 내용처럼 복남은 ‘현숙하고 거룩한 부녀’로 살았던 것이다. 복남과 정원을 비롯하여, 정원의 모친 수동댁 등 『한티재 하늘』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대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세상을 쫓아 혹은 세상에 쫓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정네들’을 대신하여 그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수동댁을 필두로, 그 아랫대에 해당하는 정원이와 복남이가 자식을 양육하며 집안을 건사하고, 그 아랫대에서도 여성이 주도하여 가계를 꾸려가는 서사가 이어짐으로써 『한티재 하늘』은 모계 중심의 서사로도 읽힌다.

특히, 『한티재 하늘』은 후반부로 갈수록 부계 중심의 유교적 질서를 뒤트는 방식으로 여성 서사에 힘을 실어준다. 여러 사건을 통해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성들의 처참한 삶이 재현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모성성이 부각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인물이 서억의 아내 영분이다. 기미년 3.1만세 이후 서억은 현실 변혁을 꿈꾸며 집을 떠나는데<sup>30)</sup>, 그런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영분

29) 1권, 178-179쪽.

30) 을미의병-빨란구이로 집을 나선 길수에게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가출의 대의와 명분을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서억의 서사에는 영분과의 긴장이 강화되는 방식이 강조되면서 서억의 가출은 긍정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각성해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영분이는 신랑 서억이를 말짱 잇고 살기로 했다. 영분이한테는 서억이 말고도 시어매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집이 있고 엇가리뻘기지만 밭도 있고 논도 있다. 그리고 이웃 아낙들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강이 있고 바람도 있다. 이렇게 많고도 많은데 왜 여태껏 서억이 그 매정한 남정네한테 목매달고 있었을까? 밤이면 뜬눈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고, 왜 목이 쓰리도록 그리워했을까? (중략-인용자) 영분이네 앞마당은 여름밤 아낙들의 세상이다. 삼베적삼 소매자락을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장다리를 훌렁훌렁 들어내 놓아도 흥이 안되는 별난 곳이다. 삼삼기에는 압전하게 감출 수도 없다. 훨훨 타오르는 광술불에 아낙들의 허여털긴 다리가 어둠 속에 봉실봉실 떠 있다. 일을 하는 건지 놀이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일이 되기도 한다. / 그렇게 떠들며 삼아 놓은 삼실이 아침이면 돌방광주리에 수북이 담겨 있다. 아낙들의 웃음이, 아낙들의 눈물이, 아낙들의 삶이 이어져 실이 된 것이다.<sup>31)</sup>

남편을 기다리는 부덕(婦德)이 강조되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을 잇고 살겠다고 영분의 결단은 일종의 도전이다. 남편에게서 자립하여 당당하게 서려는 영분의 모습은 당대 사회에 맞서는 나름의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영분은 남성에 의해 고통받는 타자가 아니라 타인을 돌보고 일으키며 그들과 더불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서 재현된다. 곤궁한 삶에 지친 이웃에게 자신의 마당을 개방함으로써, 영분은 노동과 놀이가 뒤섞여 각자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힘든 농사일과 길쌈 노동에 지친 여성들은 가부장 사회에서 현실적 약자지만, ‘영분이네 앞마당’에서 서로를 돕고 채우며 살아가는 동안 ‘아낙들의 세상’을 누리는 각자 삶의 주체로 서게 된다. 현실변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출한 서억이 꿈꾸던 세상은 소설에 그려지지 않지만, 영분은 자신의

31) 2권, 274-277쪽.

앞마당에서 그런 세상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티재 하늘』에 두드러진 여성 중심의 서사는 동학에 담긴 여성주의적 시각과도 상통해 보인다. 문노인 부자의 서사에서 인용된 <안심가>에서도 드러났듯이, 동학은 ‘부녀자의 도통’ 즉 여성의 각성을 강조한다. 수운에서 해월로 이어지는 동학사상에는 당시 차별받던 여성에게 새로운 세상, 후천개벽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여성해방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도통한 여성들의 자각, 굳이 동학교도가 아닐지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성들의 서사가 『한티재 하늘』을 추동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여성들의 대모(大母, Matriarch) 역할을 하는 수동댁은 친딸 정원이나 이웃 복남이, 병어리며느리 채숙,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한 가족처럼 여기며 돌보고 있다. 채숙이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친손주처럼 품어 키우다가, 아이에게 닥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피하려고 채숙과 아이만을 데리고 숨겨졌던 마을을 떠난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차별받을 그들- 병어리와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내버리지 않고, 수동댁은 성심을 다해 종대를 키우고 채숙을 돌봤다. 이는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님으로 섬기라고 강조한 동학사상과도 이어진다.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이 할 도리란 대체 무엇인가? 지체 높은 양반님들은 법을 들먹거리고, 삼강오륜을 내세우고, 공자님 맹자님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것들이 사람의 도리를 온다지로 다 했던가? 그것들이 가르치는 대로 고분 고분 따르는 게 사람의 도리일까? 정말 그것들이 사람을 살렸던가?<sup>32)</sup>

조선 시대 양반들이 신봉한 유교(성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옳은 길, 즉 인도(人道)를 배우고 깨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세안민을 실현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리학은

32) 1권, 181쪽.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사람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오히려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당시 양반들이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구축된 봉건적 신분제는 필연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했는데, 양반으로 대표되는 지배계급의 수탈과 신분 차별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 것이다. 현실변혁의 힘을 상실한 성리학의 문제를 수동택은 위와 같이 비판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이념적 틀이었던 유교(유학)만으로는 혼란한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운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재가녀(再嫁女)의 자식으로 신분적 한계와 차별을 겪었던 수운은 동학을 창도하고 자신의 여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으며, 신분 해방과 남녀평등을 몸소 구현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공경하라는 해월의 사상을 거치며, 동학은 인간 평등, 신분철폐, 여성해방의 사상으로 나타났고, 동학의 경전과 가르침을 통해, 또 사회개혁을 염원하는 민중의 봉기로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한티재 하늘』은 이러한 동학적 세계관을 여러 측면에서 재현했는데, 특히 소설의 종반부는 동학사상을 몸소 실천한 인물- 여성 동학교도 은애의 서사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동학의 주문 수련을 통한 현실변혁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봉택 며느리 은애는 유학 간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다. 이러한 은애의 처지는 집 떠난 서역을 기다리는 영분의 그것과 동일하다. 은애는 시집을 때 친정 오라비가 몰래 주고 간 『용담유사』를 꺼내 읽으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을 자각한다. “동학에 나오는 <도덕가> <홍비가> 같은 것을 자꾸 읽고 나서부터” “실경이네 식구가 진정으로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2권, 228쪽)한 것이다. 은애가 즐겨 읽는 <도덕가>와 <홍비가>는 비교적 후기에 만들어진 가사로서, 『대학』, 『중용』, 『주역』, 『시경』 등의 사상과 문장을 아우르며 수운의 깨우침을 핵심적으로 노래한 것이다<sup>33)</sup>. 소설의 초반에 인

33) 수운 최제우가 포교를 위해 만든 『용담유사』는 4년에 걸쳐 지은 8편의 가사



용된 <안심가>가 비교적 초기에 지어져 수운의 종교체험과 전후 상황을 알기 쉽게 담고 있다면, 후반부에 제시된 가사들은 훨씬 심오한 동학의 체계와 핵심사유를 짚고 있다. 문노인 부자의 서사와 은애의 서사에 각각 제시된 경전들은 후자가 핵심적이고 보다 난해한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남녀의 격차를 전복하고 있다.

소설에서 은애의 자각은 동학 경전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수련을 통해 삶으로 구현된다. 동학에서 주문 수련은 단순히 외워 읊는 것이 아니라, 동학의 핵심을 담은 경전 중의 경전을 체화하는 과정이다<sup>34)</sup>. 수운은 『동경대전』의 <논학문>에서 밝힌 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절차와 도법을 정하고, 이를 위해 주문(呪文)과 강령의 법을 짓고, 잊지 않는 글을 지었는데, ‘절차와 도법이 오직 이십일 자로 될 따름’이라고 했다<sup>35)</sup>. 주문만 잘 외워도 누구나 현인,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

(<검결>까지 합하면 9편)를 모아 엮은 책이다. 득도 체험이 있었던 1860년 4월 말에 지은 <용담가>와 몇 달 뒤에 지은 <안심가>, <교훈가> 등 초기 가사에는 종교 대각의 체험과 전후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후기(1963년)에 지어진 <도덕가>와 <홍비가>는 『대학』, 『중용』, 『주역』, 『시경』 등의 사상과 문장을 아우르며 동학의 체계와 핵심사유를 짚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지은 <홍비가>는 『동경대전』의 마지막편 <불연기연> 등과 함께, 순교 1년 전인 1863년 10월경에 지어졌는데, 동학의 인식론적 틀을 제공하는 ‘불연기연’의 사상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여성들에게 익숙한 국문 가사체의 양식과 내용으로 저술된 『용담유사』에도 『동경대전』에서 제시된 동학의 사유와 이치가 담겨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34) 알려진 대로, 수운은 1860년에 결정적인 종교체험-절대적 존재인 한울님으로부터 천도를 가르칠 ‘영부’와 ‘주문’을 받은 득도 체험을 통해 동학의 독자적 지평을 열었다. 그 직후에 바로 포덕(布德, ‘치유’와 ‘강학’을 의미함)에 들어가지 않고 일 년 동안 수련과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동학의 체계를 확립했다. 그에 따르면, 21자로 된 ‘주문’을 통해 천지조화의 무궁한 운수와 천도의 무극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21자의 주문은 13자 주문으로 집약된다. 『용담유사』의 <교훈가>에는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 무엇하며, 심학(心學)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不忘其意) 하였어라 현인군자 될것이니 도성입덕(道成立德) 못미칠까”라며, 집약된 13자 주문을 지극히 익혀 마음공부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 35) 『東經大全』, 『論學文』, “吾亦幾至一歲 修而度之則 亦不無自然之理 故 一以作呪

이다. 『한티재 하늘』은 동학 주문을 통해 은애의 세계관과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소설에 담고 있다.

은애는 어쨌든 수운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밤낮으로 틈만 나면 주문을 외웠다.

“위천주교아정영세불망만사지.” /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 들판이 가뭇에 타들어 갈 때, 은애는 집안에서 혼자서 ‘위천주시천주’를 외우며 가슴을 태웠다. / 은애는 정지일을 한 가지씩 손수 늘려 갔다. 춘분이 뭇의 일을 점점 줄여 주고 힘든 일 곳은일도 해 나갔다.

(중략-인용자) / “인지부터 작은마님 하지말고 형님이라 불러.” / “에애?” / 춘분이는 입이 딱 붙어진다. / “이 세상은 상전도 머슴도 없고 모두 형제간이네.”<sup>36)</sup>

동학에서 주문(呪文)은 수운의 깨달음을 집약한 것으로, 주문을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수련을 통해 핵심사상인 ‘시천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천지조화와 천도의 이치가 담겼다는 21자의 주문은 강령주문(降靈呪文) 8자, 본주문(本呪文) 13자로 구성되며<sup>37)</sup>, 은애가 외우는 주문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는 본주문으로,<sup>38)</sup> 하늘님 모심을 온전

文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

36) 2권, 228-229.

37) 수운은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21자 주문을 풀이할 때 각 글자의 뜻을 순서대로 상술하는데, ‘그 덕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며 주문을 통해 도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曰呪文之意何也 曰 至爲天主之字故 以呪言之 今文有古文有 曰降靈之文 何爲其然也 曰至者 極焉之爲至 氣者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今至者 於斯入道 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請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강조-인용자)

38) 『한티재 하늘』에는 동학 초기에 사용하던 초학주문을 함께 쓰고 있는데, 소설의 “위천주교아정영세불망만사지”는 “위천주교아정영세불망만사의(爲天主顧我情

히 체득하면 무위이화(無爲而化)로 마음이 정(定)해지고[侍天主造化定], 이를 평생 잊지 않으면 만사가 모두 깨달아진다[永世不忘萬事知]는 뜻이다. 본주문의 핵심 ‘시천주’는 ‘시(侍, 모심)’로 집약되는데, 수운은 그것(侍)을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 ‘각지불이(各知不移)’로 풀이한다. 인간의 내면에 하늘의 거룩한 영이 내재하고, 외부 즉 우주적 기운 속에 나서 그 기운과 작용하며 살고 있으며, 하늘의 기운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시천주’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누구나 내면에 하늘님(한울)을 모신 거룩한 존재이며, 우주적 기운 속에서 다른 존재와 연결된다.

소설에 재현된 바와 같이, 은애가 주문을 외는 행위는 그러한 ‘시천주’의 의미를 담아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한다. 자기 안에 하늘을 모신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신분과 관계없이 공경하는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sup>39)</sup>. “이 세상은 상전도 머슴도 없고 모두 형제간”이라는 은애의 말은 그러한 ‘시천주’의 자각을 의미하는데, 은애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다. 동학의 ‘앓’이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즉 ‘실천지’이자 ‘체득지’임을 소설로써 제시된 것이다. 한편, 『한티재 하늘』에는 13자 본주문 외에도 8자 강령주문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시천주’를 온전히 받아들인 은애는 시어머니까지도 포덕했고, 참봉댁은 은애가 알려준 강령주문을 외고 있다.

永世不忘萬事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학 초기에는 입도 후 3개월 정도 초학주문을 읽고난 다음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읽게 했으나, 현재 천도교의 입도식에는 입교와 동시에 21자 주문을 외우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 주문 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2006, 44쪽.

39) 동학의 주문 수련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용휘, 「동학의 수도(修道)와 주문(呪文) 수련의 의미」, 『선도문화』 1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119-252; 김용휘, 「동학의 주문과 영부로 본 양생과 치병」, 『도교문화연구』 55, 한국도교문화학회, 2021, 123-156; 윤철현, 「동학의 수도법 고찰- 천도교 경전을 기준으로」, 『동학학보』 72, 동학학회, 2004, 107-161쪽 참조.

참봉택은 “지기금지원위대강”을 외웠다. 하늘님의 영기가 크게 내려와 달라는 주문이다. 참봉택 마음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참봉님 마음에도 이 집안 구석구석 하늘님의 영기가 가득하기를 빌었다. / 참봉택은 여태 크게 잘못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으로 훌쩍 떠나가 버린 외아들이 지금 어찌면 그 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봉택이 은애가 가르쳐 준 동학을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은애처럼 선하게 살자는 마음보다 어디라도 기대어 여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기금지원위대강”을 외우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다.<sup>40)</sup>

참봉택이 외우고 있는 주문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은 『동경대전』 <논학문>에서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 즉 ‘주문’에 대해 설명할 때, ‘강령의 글’에 대한 풀이로서, 본주문 13자에 앞서 제시되고 있다. 강령주문은 하늘님의 신령이 직접 내 몸에 내려와 기화(氣化)하기를 기원하는 주문으로, 조화(造化)의 궁극적인 근거인 지기(至氣), 즉 조화성 자체의 체득(體得)을 기원한 것이다<sup>41)</sup>. 앞서 살펴본 ‘시천주’는 ‘강령’의 원리를 알고 깨달아야 가능하고, ‘하늘님의 영기’를 마음으로 키우는 양천주(養天主)를 통해 나타난다. 즉,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기르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 안의 하늘을 키우며 심겨야 한다<sup>42)</sup>. 또

40) 2권, 230-231쪽.

41) 수운에 따르면, ‘지기(至氣)’는 지극한 기운, 즉 하늘 조화(造化)의 일원적인 기운을 뜻한다. ‘금지(今至)’는 도에 들어 처음으로 지기(至氣)에 접함을 아는 것이고, ‘원위(願爲)’는 원하여 비는 것이며, ‘대강(大降)’이란 기화(氣化)를 원하다는 뜻이다. 또한, ‘강령’이란 대우주의 생성과 운행을 말하는 것으로, 내 몸 밖에서 별개의 대우주의 운행이 아니라 내 몸을 생성하는 우주 기운이 나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령주문 <지기금지원위대강>은 ‘강령(降靈)’의 진리를 밝힌 천서(天書)로서, 나와 천지를 포함한 대우주의 생성과 운행을 표현한 것이다. 강령주문에 관한 것은 윤철현, 「동학의 수도법 고찰- 천도교 경전을 기준으로」, 『동학학보』 72, 동학학회, 2004, 135-157쪽 참조.

42) 『해월신사법설』 <養天主>에는 “한울을 養할 줄 아는 者라야 한울을 모실 줄 아느니라. 한울이 내 마음속에 있음이 마치 種子의 生命이 種子속에 있음과 같으니, 種子를 땅에 심어 그 生命을 養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道에 依하여 한울을 養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한 ‘시천주’는 사람을 공경하는 행위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sup>43)</sup> 은애와 같이 차별받는 이들을 공경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참봉댁은 주문을 외면서도, 은애가 실경이 가족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이전 생활방식을 바꿔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경이 가족을 공경의 대상으로 깨닫지 못하는 참봉댁은 주문을 외면서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여태껏 행한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뿐이다. 참봉댁의 주문은 자기 잘못으로 인한 두려움(자기로 인해 외아들이 별을 받고 있다는)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봉댁의 마음은 동학 창도 당시 수운이 경계한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sup>44)</sup> 그것을 극복하고 천심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련법으로 제시된 것이 동학의 ‘주문’이다.<sup>45)</sup>

43) 『해월신사법설』 <三敬>에는 “둘째는 敬人이니 敬天은 敬人의 行爲에 의지하여 事實로 그 效果가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수운의 ‘시천주’를 해월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하여, 당시 폄박받던 민중, 여성, 아이들까지도 하늘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나아가 사람뿐 아니라 만물이 다 하늘님을 모셨으므로 만물까지 공경하라는 삼경(三敬: 敬天, 敬人, 敬物)의 사상으로 확대해갔다. 이는 천지를 부모같이 섬기라는 ‘천지부모’의 사유에 대해 자연만물을 공경함으로 그것을 살리는 생명 사상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해월의 사상은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과 살림’을 중시하는 생명사상이자 평화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용휘, 「해월 최시형의 공경과 살림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5-28쪽 참조.

44) 수운은 19세기 말 조선에 닥친 모든 문제 - 삼정의 문란과 외세의 침략, 그로 인해 각박해진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각자위심)에 있다고 보았다. 『동경대전』, 「포덕문」, “又此近來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수운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위심하여 천리(天理)와 천명(天命)에 따르지 않음으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이것이 당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보았다.

45) <포덕문>에서 밝힌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동학의 창도 이치를 밝힌 것이 <논학문>이다. 수운은 21자로 된 주문을 통해 천지조화의 무궁한 운수와 천도의 무극한 이치를 깨칠 수 있다면서 각각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용휘, 「동학의 주문과 영부로 본 양생과 치병」, 『도교문화연구』 55, 한

“어매임, 사람은 지주금 모두 하늘이러는데, 분수 찾고 옷아래 찾아보  
 마 도로목같이 되잖니껴? 어매임은 안죽 안 하세도 되제만 지는 수운  
 스승님 말씀대로 살아야제요.” / 은애는 망설이지 않았다. 좁은 집안 울  
 타리 안이지만 은애는 그렇게 스스로 하늘이 되어갔다. 공간에서 쌀을  
 퍼내어 실경이네 잡곡과 바꿔다 보리밥 조밥을 먹었다.<sup>46)</sup>

며느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봉댁에게 은애는 ‘수운 스승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내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운의 가르침  
 은 21자 주문으로 집약되며, 그것은 ‘시천주’로 압축된다. 내 안에 하늘  
 님을 모시듯이, 모두를 ‘거룩한 하늘님’과 같은 존재로 모시라는 것이 수  
 운의 가르침인데<sup>47)</sup>, 이는 “사람은 지주금 모두 하늘”이라는 은애의 말과  
 같다. ‘시천주’의 ‘하늘님 모심’을 깊이 체득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님  
 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수운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은애의 선언은 ‘스스로 하늘이 되는’ 바, 인간과 하늘이 본래 하나님  
 임을 깨닫는 인내천(人乃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  
 애의 주문은 실경이 가족을 기꺼이 ‘하늘님’으로 모심으로써 ‘시천주’를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실현했다. 자신의 ‘형제간’으로 대하면서 자기  
 가 가진 것들을 서슴없이 나눠 가졌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서  
 로 도우며 산다는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정신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한  
 것이다. 실경이의 딸 후분이는 은애가 지어준 핫저고리를 선물 받고 “사  
 람 살아가는데 옆옆 이웃 간에 작은 것으로 정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  
 중한지”(2권, 235쪽) 깨닫게 된다. 후분이의 산바라지를 직접 하겠다는  
 은애 덕분에, 그녀는 벅속 아이를 건강히 품을 수 있을 터였다. 이처럼

국도교문화학회, 2021, 123-156쪽 참조.

46) 2권, 230쪽.

47) 실제로 수운은 경주 용담으로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  
 평등한 존재, 거룩한 하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해월 또한 ‘사람  
 은 하늘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귀천을 분별함은 곧 천의를 어기는 것이  
 니 일절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은애의 시천주는 후분이의 뱃속 아이까지 섬기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갔으며, 그 섬김은 ‘모든 생명에 대한 공경과 살림’에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한티재 하늘』의 후반부는 동학교도 은애의 서사가 주문 수련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엮여 전개되면서 동학의 핵심인 ‘시천주’의 심오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은애와 참봉댁의 주문 수련을 대비하면서 진정한 ‘모심(侍)’이 자기와 연결된 모든 존재를 섬기고 살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소설은 참봉댁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여전한 ‘각자위심’으로 ‘양천주’하지 못한 참봉댁의 ‘모심’은 결국 ‘살림’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비유한 것으로 읽힌다. 참봉댁의 장례의식이 춘분이의 불거리로 전락하는 마지막 장면은 수탈자에 대한 원망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참봉댁과 같은 ‘가진 자’의 입장이었음에도 은애의 ‘모심’은 폄박받는 이들에 대한 섬김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원망을 온정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여전한 현실에서, 은애의 ‘시천주’가 그것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미완의 가능성은 19세기 말 조선 사회에 내놓은 수운의 구제책과 다르지 않다. 수운의 동학은 정치·경제적, 군사적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수운의 동학이 백성이 처했던 구조적 불평등을 척결하지 못했으나, 차별과 억압 가운데 ‘시천주’의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것이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을 추동했고, 그 이후에도 불평등에 항거하는 힘이 되었다. 『한티재 하늘』의 서사를 닫는 은애의 ‘시천주’- 동학은 바로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

#### 4. 결론

『한티재 하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의

주요사건을 경북 북부지역에 살던 이들의 언어와 서사로 풀어쓴 소설이다. 소설의 제목이 지시하듯, 『한티재 하늘』은 한티재를 오고 가는 이들의 삶을 서사화하였다. 『한티재 하늘』의 전반부는 ‘숨어서 동학하는 사람들’의 서사와 한티재를 오가는 ‘뺨란구이’의 서사가 뒤섞여 전개되는데, 그들을 추동하는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의 정신이 문노인 부자가 읽는 동학의 경전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동학교도 문노인 부자의 잇따른 죽음을 비롯하여, 뺨란구이를 돕다 죽은 건재, 신돌석을 따라 세상을 떠도는 중놈 주남이까지, 동학에서 물꼬를 튼 뺨란구이의 서사는 보국안민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던 이름 없는 이들의 역사다. 문노인 부자의 <안심가>는 갑오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뺨란구이’의 역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다시개벽’의 정신으로 추동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염원했던 ‘뺨란구이’ 서사의 한편에는, 삶터에 남겨진 ‘아낙네들’의 서사가 자리한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여성들의 서사는 여성해방을 선취한 동학사상과도 이어지는데, 후반부에 등장하는 은애는 일상에서의 수련을 통해 삶을 변혁하는 동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은애를 통해 구현되는 동학의 주문 수련은 동학사상이 집약된 21자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면서, 그 핵심인 ‘시천주’를 직접 체험하는 행위다. 이렇게 체득된 ‘시천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은애의 시각과 인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한다. 은애의 주문은 차별받고 수탈당하는 사회적 약자, 실경이 가족을 ‘하늘님’으로 모시게 함으로써 ‘시천주’를 ‘사인여천(事人如天)’, ‘유무상자(有無相資)’로 확장해간다. 은애의 서사는 동학이 개인의 종교활동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은애의 서사로 종결된 『한티재 하늘』은 미완의 소설이지만, 동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유교적 봉건 체제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시각과 잇닿아 있다. 당대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적 질서체제로는 19세기 말 조선의 현실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현실변혁의 차원에서 민중의 봉기로 발현되었던 것인데, 『한티재 하늘』은 그러한 현실 인식을 서사화하여 한국 근대사의 주요사건들과 조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천주’, 즉 모두를 하늘님으로 공경하는 개인의 각성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보다 근원적인 시각을 요청한다. 이처럼, 『한티재 하늘』은 ‘시천주’와 수운의 가르침을 경유하며, 신분질서와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는 여성의 서사를 통해 유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다만, 미완의 서사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유추할 뿐이다.

이처럼, 권정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터에 깃든 동학의 역사와 그 사유에 주목했고, 특히 은애라는 인물을 통해 동학의 ‘시천주’에 담긴 ‘하늘님 모심’의 의미를 궁구했다. ‘시천주’의 일차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sup>48)</sup>. 가톨릭의 ‘천주’(하느님)이나 개신교의 ‘하나님’이 ‘초자연적 절대자’라는 점에서 ‘시천주’의 ‘하늘님’과는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의 통칭)는 자기 안에 내재한 ‘하느님(하나님)’의 신성을 자각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타인도 그런 하느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사유를 품고 있다<sup>49)</sup>. 모든 사람이 거룩한 ‘하늘님/하느님’을 모신 존재라

48) 수운은 ‘시천주’를 ‘시(侍)’의 세 가지 의미(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로 풀이하면서, ‘천주’는 하늘(天)의 존칭이라고 하였다. 수운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동아시아에서 인식되는 다의적인 ‘천(天)’의 개념이 ‘시(侍, 모심)’의 세 의미로 해석된 것이다. ‘시천주’는 “나의 안팎에서 영과 기운으로 작용하는 하늘을 자각하고 그에 연결됨으로써 하늘과 분리되지 않는, 하늘의 뜻과 합치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천주’와 ‘천주’는 다른 개념이지만,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내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동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이가 하느님의 신성을 가진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한다면 동학과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시천주’와 ‘천주’의 개념에 관해서는 김용휘, 「최제우의 동학과 개혁의 꿈」, 『지식의 지평』 17, 대우재단, 2014, 170쪽 참조.

49) 나와 연결된 신적 존재를 자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는 자각,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겨야 한다는 삶의 원리가 동학과 기독교에 함께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권정생은 억압받고 상처받는 약자들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상부상조하는 인간적 유대를 강조해왔다. 『강아지똥』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약자들을 향한 그의 시선과 삶에 태도는 ‘시천주’의 정신과 닮아있다. 『한티재 하늘』에서 제시한 동학적 사유와 세계관도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지점이 많다. 신적 존재의 자각과 연결이라는 지점에서도 그렇다. 동학의 수심 정기와 주문 수련 방법은 기독교의 성령강림 체험과 기도법과 연결될 수 있는데, ‘내면에 하늘님/하느님을 모신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자각이 반복된 주문 수련과 기도 생활을 통해 단련되고 재구조화된다.

## 참고문헌

- 권정생, 『한티재 하늘』 1·2, 지식산업사, 1998.
- \_\_\_\_\_, 『우리들의 하느님-개정증보판』, 녹색평론사, 2008.
-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 52, 호서사학회, 2009, 81-120쪽.
- 김상일, 「전·후기 동학가사의 동학사상과 그 변모」, 『동학과 전통사상』, 모시는사람들, 2005, 161-204쪽.
- 김상임, 『권정생 『한티재 하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용휘, 『우리학문으로서의 동학』(개정판), 모시는사람들, 2021.
- \_\_\_\_\_, 「동학의 수도(修道)와 주문(呪文) 수련의 의미」, 『선도문화』 1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119-252쪽.
- \_\_\_\_\_, 「동학의 주문과 영부로 본 양생과 치병」, 『도교문화연구』 55, 한국도교문화학회, 2021, 123-156쪽.
- \_\_\_\_\_, 「수운 최제우 사상의 발전 계승과 의미-시천주 개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69, 동학학회, 39-72쪽.
- \_\_\_\_\_, 「해월 최시형의 공경과 살림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5-28쪽.
- 김희곤, 「신돌석 의진의 활동과 성격」, 『한국근대사연구』 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122-154쪽.
- 박맹수, 『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 모시는사람들, 2011.
- 배지연, 「경북 북부지역 민중들의 대항기억과 지역사의 복원-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 연구』」, 『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71-203쪽.
- 신영우, 「경상감사 조병호와 갑오년의 경상도 상황」, 『경상도 대구동학

- 농민혁명』, 모시는 사람들, 2016, 119-122쪽.
- \_\_\_\_\_, 「경북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의」, 『동학학보』 12, 동학학회, 2006, 7-46쪽.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1-의병항쟁』, 경상북도, 2012.
- 엄혜숙, 『권정생의 문학과 사상』, 소명출판, 2017.
- 윤철현, 「동학의 수도법 고찰- 천도교 경전을 기준으로」, 『동학학보』 72, 동학학회, 2004, 107-161쪽.
- 원종찬 엮음, 『권정생의 삶과 문학』, 창비, 2008.
- 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 주문 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2006, 41-68쪽.
- 이수연, 『권정생 소설 《한티재 하늘》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20』, 한길사, 2015.
- \_\_\_\_\_, 「영남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한국 근대사회」, 『경상도 대구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15, 11-34쪽.
- 조동걸, 「광무농민운동과 신돌석 의병」, 『한국근현대사연구』1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102-121쪽.
- 채길순, 「경상북도 지역의 동학 활동 연구-사적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27, 동학학회, 2013, 96-119쪽.
- 최제우, 박맹수 엮음, 『동경대전』,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한양하, 「권정생의 역사의식 연구-『한티재 하늘 1, 2』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53, 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31-56쪽.
-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347-379쪽.

<Abstract>

## Donghak's narrative and meaning in Kwon Jeong-saeng's novel 『Hantijae Haneul』

Bae, Ji-yeon\*

『Hantijae Haneul』 is a novel that describes major events of Korean modern history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language and narratives of those who lived in the northern par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first half of the 『Hantijae Haneul』 is a mixture of the narratives of “people who hide and do Donghak” and the narratives of “panrangui” to and from Hantijae, and the spirit of Donghak that drive them was presented through the Donghak scriptures read by the characters. The story of the sparkling fish in Donghak is the history of the unnamed people who tried to do something with the hearts of the national security people. The “Ansimga(Relief Song)” of the Munnoin father and son suggests that the history of “panrangui”, which began in the Gabo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driven by the spirit of “reopening up again” dreaming of a new world.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s of women who lose their husbands, raise their children alone, and establish themselves proudly as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lead to the Donghak ideology that preempted women's liberation, and Eunae, who appears in the second half, shows a dynamic world view that transforms life through daily

---

\* Research Professor of Daegu University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training. Donghak's spell training, which is embodied in the novel, is the act of experiencing the core of 'Sicheonju' by repeatedly chanting 21-character spells in which Donghak's history is concentrated. The acquired 'Sicheonju' transforms the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grace toward humans and the world into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Eunae's spell revealed 'Sicheonju' as life by serving the socially weak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deprived as 'Hanulmim'. Her narrative showed that Donghak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social problems beyond individual religious activities.

The narratives of Donghak and "panrangui" presented in this novel are related to the flow of modern Korean history trying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onfucian feudal system. Soo-woon, who founded Donghak, found that Confucianism (Seonghak),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Joseon society, cannot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of social contradictions and foreign invasions that embedde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this sense of problem, Soo-woon discovered a dignified and equal human being through 'Sicheonju'. The 『Hantijae Haneul』, through the teachings of 'Sicheonju' and Soo-woon, tries to overcome the Confucian worldview through the narrative of women confronting the status order and structural inequality.

Key Words: Gwon Jeong-saeng, Hantijae Haneul, Donghak, Choe je-u, Panrangui(뽕란구이), Sicheonju(시천주), Incantation Training(주문 수련)

■ 논문접수 : 2025년 03월 30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18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18일